<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손경임 (옛 동양화학 교환원)		
면담자	표기자	면담지원자	홍난희
면담일시	2025. 09. 22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녹취문 작성자	표기자	회차	1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5~00:00:36)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손경임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 동아리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표기자가 하겠습니다.

2. 개인 생애와 성장 과정(00:00:37~00:13:00)

면담자: 선생님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3시에 오셔서 무려 1시간을 기다리셔서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1시간 전에 오셔서 이제 좀 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풀어지셨어요? 괜찮으시죠? 자세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등 기대고 선생님 이거 질문지 보시면 괜히 또 좀 더 긴장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 그 구슬 기록을 위해서 선생님 성함하고 태어난 연도 그다음에 고향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제 이름은 손경임이에요. 경북 김천이고요. 48년생이에요.

면담자: 네 김천 하면 저가 또 결혼 전에 데이트하러 갔던 너무 추억이 좋은 그런 장소 김천 직지사 그렇죠 선생님 근데 그 바로 옆에서 사셨어요?

구술자: 못 가서요. 김천고등학교 위에요.

면담자: 정말 좋은 데서 하셨네요.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린 시절 그곳에서 자라실 때 기억나는 풍경이라든가 추억 같은 거 좋은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구술자: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요. 우리 집 앞에 큰 공동 물이 있었어요.

면담자: 공동 우물

구술자: 공동 우물이 있는데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 놓은 우물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이렇게 퍼서 이렇게 이고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150년 된 나무가

150여 된 나무가 있는데 이제 안에는 고목이에요. 고목인데 우리 집에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면 그 큰 나무예요.

면담자: 네 150년 됐으니까

구술자: 그 뱀들이 거기 굴 속에서 살았나 봐요. 안에는 나무가 텅 비었는데 뱀이 이렇게 그냥 똬리를 틀고 그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지금 안 잊어버려져요.

면담자: 그 무섭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그 기억이 아직도 지금 쌩쌩해요.

면담자: 굉장히 인상적이셨고 그게 뱀이 자주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살았나 봐요.

구술자: 그렇죠. 고목이고. 고목이니까 안에는 텅 비었어요. 근데 이제 새순에서만 잎사귀가 나와 가지고 그 이름이 해나무래요.

면담자: 해나무? 나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처음 들어봐요. 150년 된 나무면을 굉장했겠어요. 거기서 또 뱀이 겨울을 났나요? 굉장히 진풍경을 보셨네요. 자라시면서 성장하시면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교훈이나 또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면 이런 거 있으실까요?

구술자: 저희는 대가족이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삼촌 일꾼들도 많고 일꾼들이 두 명이고 방앗간을 하고 그래가지고 12명이었었어요.

면담자: 부자셨네요. 방앗간 했으면.

구술자: 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래도 항상 조용했어요. 뭐 그냥 큰 소리 나는 법이 없고 우리는 방앗간을 하면서 아버지가 진천 도립병원에 다니셨어요. 거기 서무과에 그랬는데 항상 나 주려고 뭐를 사 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이렇게 싣고 오셨어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안 주무셔요. 그래서 자전거 소리가 삭삭삭삭 나면 에헴 그래서 담배를 두드려요. 그러면 문을 탕 열어. 그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공손히 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셨는데도 아주 집안은 조용하고 그냥 우리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사랑으로 길렀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가장 윗어른은 할아버지. 이렇게 딱 들으면서 제가 정리 떠오르는 단어가 되게 법도 있는, 가문이 있는, 법도를 지키는 그런 전통 가문의 분위기가 저는 이제 듣는 순간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는 뭐지요?

구술자: 아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용, 조용히 자전거 갖다 세워놓고 또 이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 식사 다 하시고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주무셔요.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면담자: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셨으면 이제 선생님 댁의 어떤 가풍, 분위기는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구술자: 그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죠.

면담자: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구술자: 그렇죠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면담자: 어떻게 달라요?

구술자: 어떻게 달르다?

면담자: 좀 이렇게 왁자지껄 좀 신나는 분위기 아니면

구술자: 신나는 것보다도 요즘 애들은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애들 같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자기 할 말을 탁탁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내 저거를 내세워도 그냥 안 먹혀 안 먹혀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잊어버리지지 않아요. 물론 뭐 결혼식이나 이런 좋은 일에도 꼭 참석하면 좋겠지만 궂은일에는 꼭 참석을 해라 참석을 하고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면담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사시면서 아버지의 그런 교훈이라든가 하신 말씀들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시려고

구술자: 노력을 하죠.

면담자: 혹시 몇 남매 중 몇 째셨어요?

구술자: 5남매 중에 제가 첫째예요.

면담자: 첫째 딸 맏딸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더 예뻐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겠네요.첫 딸 보통 아버지들한테 딸은 요즘은 딸 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이인 것 같지 않으세요?

구술자: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닌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면담자: 그럼 할아버지에 비해서 할아버지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구술자: 할아버지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면담자: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는 무섭진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게 이제 조손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간의 관계 또 이제 부녀간의 관계 그렇게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 인천으로는 언제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어요.

구술자: 인천으로 직접 온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영등포로 오게 됐어요.

서울 영등포로 오게 된 이유는 남동생이 저기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영등포에서

면담자: 이미 혼자서 유학을 왔어요. 서울로.

구술자: 그랬는데 나를 밥 해주라고 보냈어요. 밥 해주라고 보냈는데

면담자: 그러면 그 당시 선생님은 연세가 아니 몇 살이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구술자: 나는 고등학교 김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 가지고 나는 새엄마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우리 남동생 밥 해주는데로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나도 이렇게 밥만 해줄 게 아니라 취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물어봤어. 나 취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때는 전부 영등포에 무슨 방직 회사 그런 데만 다녔어요. 근데 난 그런 데는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동생 말이 저기 친구 누나가 워커 일에 근무한대요. 워커힐 교환실에서 근무한대요.
면담자: 아 교환실에서
구술자: 거기는 영어를 잘해야 된대요.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어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알게 됐어. 알게 돼서 영등포에서 그 시절에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갔어요. 서울역까지 가서 그 학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퇴계로에 퇴계로 남대문시장 앞을 걸어서 신세계 백화점을 걸어서 쭉 가서 걸어 다녔어요.
걸어서 최선 교환 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면담자: 그러셨군요. 왜 방직 공장은 들어가기 싫으셨어요?
구술자: 그냥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기 교환 자격증을 어디서 관리를 했느냐 하면 지금은 정보통신부인데 그때는 체신부였었어.
면담자: 우체국이라고 하는데
구술자: 체신부 그런데 시험이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시험이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기차를 하나 다 빌려서 100명이 104명인가 그렇게 해서 부산 가서 봤어요.
면담자: 서울에 자격증 시험이 없어
구술자: 처음에 공고가 안 떠서 부산 가서 봤어요. 부산 가서 봤는데 반은 떨어지고 104명이 갔는데 55명이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중에서 합격을 했어요.
면담자: 대단한 열정이시네요. 그때가 몇 년도쯤 되는지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겠다. 고1 때 서울에 가셨고
구술자: 예 이제 학교를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새엄마가 와서 나를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 남동생은 서울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60년대 하도 오래돼서 기억
면담자: 18살 이 정도. 아까 몇 년생이라고 그러셨죠?
구술자: 48년생
면담자: 48년에다가 18 더하면은 66년 정도 되네요. 그러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학원 다니고 부산까지 가서 자격증 시험보고.
구술자: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는 100명에서 기차 칸을 한 칸을 빌렸어요.
한 칸 다 빌려가서 같이 갔어요.
면담자: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혼자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그죠.

3. 동양화학 교환원으로 취업하게 된 계기(00:13:01~00:15:07)

면담자: 인천에 이제 오셔서 인천에는 그럼 언제 오셨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구술자: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길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넌 어떻게 됐냐? 나는 인천제철에 취직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나는 다른 데 임시로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저런 그럼 내일 어디 어디 저기 이력서를 써 가지고 가봐. 그게 동양화학이에요. 그 친구가 소개해 줘서 동양화학에 저기 가서 음 정문에 가서 전기과장을 찾으라고 그러더라고 전기과장 전기과장 박수희 씨를 찾으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교환시 전기과 소속이 아니고 전기과 반, 서무과 반, 서무과 소속이었어요.

면담자: 그러면은 그 교환원으로 워커힐에 그래서 취업은 하셨어요?

구술자: 아니지. 남동생 친구 누나가 거기 있었고 동양화학에 와서 한 거야.

면담자: 그러면은 취업을 위해서 그럼 혼자 오셨어요 인천으로?

구술자: 아니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학교를 다녔고 같이 있다가 이제 이리 온 거지.

면담자: 그러니까 혼자서 인천으로 이사 오셨어요? 아니면 출퇴근으로 하셨어요?

구술자: 처음에는 출퇴근하다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옥련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면담자: 혼자서 맨 처음에 인천에 오신 데가 옥련동이시군요. 그러면 거기서 동양화학으로 출퇴근을 하신 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더 후에 더 여쭙기로 하고요.

4. 고등학교 과정을 만학하게 된 배경(00;15:08~00:20:24)

면담자: 이제 인천에 오셔서 남인천 고등학교는 언제 입학하고 졸업 연도는요?

구술자: 아 그거는 내가 뭐 저기 뭐야 다른 데 여기저기 인하대학교 시민대학 저기 1년 반 다니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저런 데 많이 다녔는데 거기는 졸업장이 없잖아요. 내가 중퇴했으니까 거기를 중퇴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집에서 소파에서 나이스 미추를 보고 있는데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사무실에 저기 바로 전화했죠. 그랬더니 저는 낮에 이야기 할머니로 유치원에 나가기 때문에 저기 주간에는 자리가 있대.

그래서 전 주간은 못 가고요. 야간으로 갈 거예요. 야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그때 이제 교환원 시절이죠.

구술자: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교환원 시절이 아니고

면담자: 그럼 교환은 퇴직하고서

구술자: 그럼요.

면담자: 네 그래서 그 입학 연도를 여쭌 거예요.

구술자: 입학 연도가

면담자: 결혼하고서예요?

구술자: 그럼요 70 둘에 다녔어요. 제가

면담자: 학교를?

구술자: 2018년 3월 2일 날 입학해 가지고 2020년 2월 11일날 졸업을 했어요

면담자: 고교 과정 고교 과정을 졸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다니시게 된 동기

구술자: 동기는 나는 새로운 일을 좋아해요. 뭐 배우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얻은 것도 많아요. 학교에서 얻은 것도 많아.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도 많고 친구들하고도 내가 제일 나이 많았어요. 70 넘은 사람은 세 사람이더라고 남자 2명 남자 여자는 나 한 명 그래도 다 친하게 지냈어요.

면담자: 이제 다니시면서 좀 힘들었더라든가. 그러니까 그때 결혼하시고 나니까 가정하고 병행을 하셨잖아요.

구술자: 결혼하고 나서는 그거를 안 했어요. 직장을 안 다녔어요.

면담자: 아니 남인천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일단 가정하고 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힘들었다든지. 학교가 종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종일

구술자: 아니 아니 주간반은 오전에 하고 나는 유치원에 이야기 할머니로 나가기 때문에 야간을 들어갔어요.

면담자: 그러면 일하시면서 가정

구술자: 예예 가정 살림도 하고

면담자: 살림도 하시면서 또 학교 다니시면서

구술자: 5시 10분에 시작해서 9시 50분에 끝났어요.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면담자: 특별히 힘들었던 적 기억나는 부분 있으세요?

구술자: 이제 여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10시잖아요. 그때 막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또 밥도 먹고 막 그랬죠. 그러는데 그래도 체력이 날씨가 더우니까 딸린다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다 가면 뭔가 어딘가 내 체력이 딸려서 안 되겠다. 아로나민 골드를 사 먹자 약국으로 그 이튿날 뛰어갔어요. 그걸 먹고 났더니 괜찮더라고

면담자: 아 바로 효과를 보셨나 봐요.

구술자: 그래도 재미있게 다녔어요.

면담자: 워낙에 이제 그 열망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몸은 좀 비록 힘들더라도 다니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졸업하시고 나서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구술자: 이력서 낼 때 이력서 학력 때문에 내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고졸이 훨씬 좋았어요. 근데 물론 이야기 할머니도 대졸 출신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

래도 그냥 그래도 우리네 나이에는

면담자: 그렇죠 고졸이면

구술자: 예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남인천 고등학교 나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기분이 좋았어요.

면담자: 남인천 고등학교 다녔던 일반고 다녔든 그게 뭐 무슨 차이예요?

고교 과정을 배우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졸업식에는 가족 누구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구술자: 예 우리 그때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못 오게 해서 강당에서 크게 국회의원 오시고 그거 다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칠판 옆에다 반장이 자기 자비로 풍선 걸고 막 꽃 걸고 이렇게 했어요. 저기 뭐야 강당에서 코로나 시대라서 따로따로 했어요.

5. 동양화학 입사와 교환원으로서 근무 경험(00:20:25~00:40:01)

면담자: 그렇죠 20년 막 코로나 시작했던 시기 이제 그 일하셨던 동양화학에서 일하셨던 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60년대 후반에 입사하셨다고 그러셨죠? 68년도가 준공을 했거든요. 동양화학 소다의 공장이. 그러면 그때예요. 68년도 준공하면서 바로 교환원으로 일했던 때가.

구술자: 그 교환대가 처음에 내가 가니까는 안에는 지금 짓고 있고 이 바깥쪽으로 일본식 일본식 집이었었어요. 다다미가 깔려 있더라고요. 다다미방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이었었대요.

면담자: 어떤 건물요? 저기 사택 극동방송 사옥을 얘기하시는가 봐요. 극동방송 사옥인데 일본식 건물이에요? 극동방송 건물은 지금도 이제 고스란히 있거든요. 근데 기와집 이거 했었는데 그거는 미국 사람이 지은 거라서 근데 일본식 건물로 기억나요?

구술자: 일본식 건물 일본

면담자: 내부가? 내부가 다다미 방이고

구술자: 어 다다미 방에서 우리가 저기 교환 업무를 했어요.

면담자: 혹시 여기가 동양화학 내에 시설 건물들이거든요.(동양화학 지도를 보며)

구술자: 여기 칼 사이나 있고.

면담자: 이거 기숙사 이거는 기숙사

구술자: 기숙사 여기고 교환실이 이쪽에 이쪽에 있었어요.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는데 일본식 집이 몇 채 있었어요 그

면담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환실 사용하셨던 건물이 그 소다회 공장 그 근처였었어요.

아니면

구술자: 소다회 공장은 여기고 여기 여기는 지금 지도에 안 나왔네요.

그런데 이런 저기 일본식

면담자: 여기 앞턱에 요 앞에가 큰 도로잖아요. 앞턱에 있었어요?

구술자: 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면담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외풍도 외관도 일본식 건물이었었어요.
구술자: 하여튼 빨간 벽돌인가 빨간 벽돌인가 있었고 위에는 기와가 있었고
면담자: 위에는 기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극동방송 사옥. 벽돌 빨간 벽돌이고 기와 있었고 근데 내부가 다다미 방이었었다고요.
구술자: 위에가 우리가 근무하는 데가 거기 다다미 방이었었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그런 한옥을 그러니까 외부는 한옥이잖아요. 기와지붕이고 하니까 그게 근무처 사무실이었어요.
구술자: 예. 교환실이 있고 또 이쪽에는 쉬는 데가 거기 다다미 방이었었어요.
면담자: 쉬는 곳이 그럼 쉬는 데? 일하시는 데가 아니라?
구술자: 아니 여기 일하는 데는 교환대는 따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쉬는 데가 다다미로 다 깔려있더라구.
면담자: 아 쉬는 곳이 휴게실이
구술자: 예. 예.
구술자: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거기서 있다가 소다회 공장 안에 다 지어서 안으로 들어갔어.
면담자: 그러니까 입사하신 연도 기억하세요
구술자: 연도가 보자.
면담자: 소다회 공장이 68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구술자: 내가 그때 여름에 들어갔었어. 여름인가 들어갔었는데 준공하기 전에
면담자: 준공하기 전부터
구술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뭐야 사무실 다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그때 연세는 기억하세요?
구술자: 그때 그때 내가 스물몇 살이었나
면담자: 대략 한 20대 초반
구술자: 예 그랬을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은 아까 몇 년생이라고 그러셨더라 48년생 48년생에다가 한 20
구술자: 그거 한 살 줄었어요. 48년생이 원 나이보다는
면담자: 그러면은 70년도가 넘는데 48년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다가 20대 초반에 들어가셨으면 한 23살로 더해도 71이면 준공 후거든요.
준공이 68년도니까 그러니까 준공 전, 준공 전에 교환원이 필요했을까요?
혹시 준공 후에
구술자: 그런데 거기 저기 뭐야 그 다다미방이 있고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6명이서 근무했어.

면담자: 그 건물이 먼저 세워지기는 했어요. 동양화학 소다회 공장보다 그 건물이 먼저 세워지기는 했거든요.

구술자: 어디냐 하면은 여기 식당이 있잖아요. 기숙사 밑에 식당이 있었어요. 기숙사 밑에 식당이 있고 한 여기만 정도 요 정도가 됐어요. 저기 기숙사는 4층까지 있었고 1층에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저기 교환실은 여기쯤 있었어요. 네 아까 요 앞을 지나갔어요.

면담자: 선생님 이런 거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지원자께 하는 말)

찍었어요. 이거 찍으셨어요?

지원자: 여기에 이게 이게 조금 이거보다 크게 나온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동양화학 성광유리랑 oci 이쪽에 여기가 동양화학 그러면은 그 위치를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돼.

면담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왜냐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면담자: 아까 그러면은 전기과나 서무과하고 위치가

구술자: 서무과 소속이에요.

면담자: 그러면은 서무과 건물은 어디였는지? 그러니까 서무과 건물하고 교환실하고는 가까이 있지 않았었어요?

구술자: 저 안으로 들어가서는 공장에 들어가서 짓고 나서는 다 같은 건물이었죠.

우리 바로 옆에는 공무과 건물이고 공무과 사무실이고

지원자: 그냥 정확한 위치를 아니면 여기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그림 한번 그려보셔도 되거든요. 위치를 어디 그러니까 얘가 서무과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면담자: 서무과 기준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기숙사에서 이쪽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술자: 여기 저기 식당을 가려면 이리 갔어 이리 갔어요.

면담자: 네네.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1층에 강당이 있네요. 기숙사

구술자: 4층까지 있었어요.

면담자: 그 1층에 또 강당이 있었다고 네. 제가 어디까지 질문드렸냐, 무슨 얘기하다가 이 위치를 여쭤봤냐. 그러니까 입사를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됐고 혹시 그때는 채용 과정이 공채 이셨나봐요? 아니면은

구술자: 아니요. 우리 그냥 소개로 친구 소개

면담자: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이미 이거 교환원으로 일을 인천 제철에 온 거죠.

인천제철 교환원에. 그러면은 왜 인천제철 교환원으로 안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아 거기는 꽉 찼으니까

면담자: 여기가 티오가 있었구나. 또 여기는 이제 새로 시작한 회사니까?

구술자: 예 예.

면담자: 들어가셨구나. 그러니까 하시던 일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구술자: 그게 뭐냐 하면은

면담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구술자: 아침에 8시 반에 출근 8시 반까지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면 이제 경비실에서 도장을 찍고 도장 찍고 그때 도장 찍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제 교환실에 들어가면 교환실 2층이었나 그러는데 3명이서 근무해 A조 3명 B조 3명 이렇게 24시간 근무해요.

면담자: 교대 근무하셨어요?

구술자: 24시간 근무했는데 이제 교환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판넬이라고 그래요.

판넬이라고 그러고 여기 밑에 보면 빨간 불이 불이 들어와요. 시내에서 들어와요. 네. 4개가 4개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여기 있는 줄을 꽂아 그러면 네.

동양화학입니다. 네. 동양화학입니다. 이러고 그러면 10번 대 주세요.

그러면 그 줄을 갖다가 10번에다 꽂아.

면담자: 그러니까 사무실 번호.

구술자: 예. 사무실 번호에다 10번에다 꽂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용 혹시 이제 돌려주면은 거기 직접 이제 당사자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어떤 용무로 동양화학에 전화를 걸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런 거 알 수 있었나요?

구술자: 그런 거는 모르죠. 우리는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 저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면담자: 혹시 뭐 누구를 찾는다든가 특정 인물 그런 경우 혹시 기억에 남는 인물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구술자: 그런 거는 없고요.

면담자: 그냥 어느 부서 돌려주세요. 이 정도 그러면은

구술자: 굉장히 한 100회 선 넘었어요. 100회 선이나

면담자: 그 100회선이라는 거가 받는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아니요. 만약에

면담자: 아 그 부서 돌려서 전환시켜주는거가?

구술자: 이렇게 줄을 꽂아주는 데가 100회선 넘었어요.

한 120회선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면담자: 공장 및 각 사무실

구술자: 예 예 예

면담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거는 이따가 이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은 2교대 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2교대.

면담자: 12시간 일하고

구술자: 아니 그런 거였어요. 3명이서 하고. 8시 반에 출근을 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8시 반에 퇴근했어요.

면담자: 거기서 그러니까 24시간씩 시간 그리고 그다음 날은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 날 8시 반에 출근해서

면담자: 퇴직하실 때까지 계속 그 그러면은 교환원이 총 6명

구술자: 6명이었었어요.

면담자: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구술자: 3명이 근무하는데 낮에는 1시간가량 교대를 하고 밤에는 거기 침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침대에서 한 명 잘 수도 있어요. 밥도 거기서 해 먹고 그러는데 이제 밤에는 한가하니까. 왜 거기는 24시간을 하냐면 현장에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뭐 뭐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연락을 하니까는 있어야 됐어요. 교환대가

면담자: 교대 근무였었으면 어떻게 많이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구술자: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뭐 힘든 건 몰랐어요.

면담자: 혹시 너무 바빠서 좀 인력을 더 보충해 달라든지 그런 요청은 해본 적은 없으시고요?

구술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면담자: 왜 그런 거죠?

구술자: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쉬었다가 쉰 사람이 또 여기 근무한 사람하고 교대하니까요.

면담자: 그러면은 전화 오는 건수가 아니 그렇게 바쁘지는 않으셨다.

구술자: 바빴죠. 한 10시 정도 월요일 날 10시 정도 되면 굉장히 바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면담자: 그래도 젊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근무하고 또 휴식시간도 있고 이렇게 교대로 쉬시면서 그렇게 일하신 거죠. 그럼 급여라든가 혹시 첫 급여 기억나세요?

구술자: 6800원 받았어요

면담자: 70년도인데 70년도

구술자: 70년도가 아니지 60년대 후반이었어요. 70년도 아니고 70년대 내 그만뒀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아까 23살에 만약에 입사하셨다 그러면 이제 70년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60년대 후반.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구술자: 6800원이요 그것도 많이 받은 거예요.

면담자: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구술자: 야근을 하니까

면담자: 그렇죠 야간 수당이 더 붙죠.

구술자: 수당이 있어서

면담자: 이때 혹시 동양화학에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급여 비교 해보셨어요?

구술자: 있었어요. 나 아는 사람이 식당에서 만났는데 월급 월급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타냐니까는 사무실에서 저기 근무하는 사람인데 5800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그럼 더 많이 받으셨겠네요

구술자: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면담자: 야간 수당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무직들

면담자: 그러면은 잠 주무실 때는 그냥 옆에 그 공간에서 침대

구술자: 침대가 있으니까 침대에서 자요. 거기서 밥도 해먹고 막 그냥 지냈어요

면담자: 그래서 같은 동료들끼리

구술자: 그래도 친하게 지냈어. 청소 안 한다고 가끔씩 싸우긴 했지만

면담자: 실내 청소는 알아서 서로 이제 해야되는 거죠. 그 당시 근무하실 당시 아니면은 입사 그 즈음에서 주변에 동양화학 내에 그런 건물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떠오르는 장면 있으세요? 건물이 60년대 후반이면은 별로 없었겠죠. 소다회 공장하고. 그 뒤로 이제 퇴사는 몇 년도에 하셨어요?

구술자: 70년도에 했어?

면담자: 70 몇 년도

구술자: 70년에 오래 안다녔어.

면담자: 60년대 후반 60년대 그러니까 한 5~6년 그럼 다니신 거예요

구술자: 6년까지는 안 했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3, 4년

면담자: 그러니까 교환원으로서는 초창기 멤버신 거예요.

구술자: 초창기는 내가 가니까는 몇 사람이 있더라고 몇 사람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인가 있었는데 두 명을 더 저기

면담자: 더 충원을 그래서 그 케이스로 들어가신 거였었구나. 2명 충원. 결혼하시면서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 회사 규율상 결혼하면은 못 다녔어요?

구술자: 그때는 여자들이 결혼하고 안 다녔어.

면담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구술자: 내가 전화국으로 갈려고 그랬어요. 전화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나 여자 여자가 직장 사는 거 싫어. 그만둬. 살림이나 잘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전업 주부로.

면담자: 그러면은 좀 아쉬우셨어요? 아니면

구술자: 아쉬웠죠 아이고 그 전화국에 갔으면 지금 퇴직금 받고 용돈 받고 있을 텐데

면담자: 그러면 주변에 인상 깊었던 기억나는 건물 동양화학 하면 막 그 블뚝 솟은 굴뚝이며
구술자: 굴뚝은 여기도 여기 보니까 뭐 이 굴뚝이 있었어. 아까 그랬다니깐요.
면담자: 아니면 혹시 소다회 공장 내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구술자: 아니 없어요 우린 들어갈 일이 없죠.
면담자: 그렇죠 종일 일하시니까.
구술자: 들어가면 그냥 교환실에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은 퇴사하시기 전에 그때 이제 이미 지금 현재 남편분하고 교제를 하실 때잖아요. 그렇죠 사내 연애를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 남편분은 소다회 공장에서 일을 하셨죠?
구술자: 아니 소다회가 아니고 맨 처음에 1공장 2공장이 있었어요. 소다회가 1공장이고 저 뒤에는 2공장인데 거기는 피프란트라고 그랬어요. 피프란트 PVC 공장 만드는 PVC. 그런데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닫아서 우리 아저씨가 소다회로 내려왔어요. 몇 명 하여튼 내려왔어요.
면담자: 아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쭌 거는 그래서 혹시 이제 연애하실 때 남편이 일하시는 거기에 가보신 적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였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동료분들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퇴근 시간도 함께 퇴근을 못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퇴근 후에 식사를 한다거나.
구술자: 그런 건 없지 아침에 집에 가서 자야지.
면담자: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노는 그런 거는 못 해보신 거네요.
구술자: 네.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면담자: 네. 혹시 교환원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세요?
구술자: 아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여기 있는 건 안 적어왔네.
면담자: 네네. 맞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기억이 소환될 때가 있어요.
구술자: 그랬는데 내가 그중에서 3명이서 저기 근무를 하는데 2명은 자고 밤에는 12시 넘으면 한가해요. 혼자 근무해도 돼. 그런데 불이 들어오면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전화기를 들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불은 안 들어오고 어디서 따각 따각 따각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이제 새로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따깍따깍 이 소리만 들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교관실 문이 그냥 발로 그냥 탕탕 차더라고 남자 소리가 나면서. 탕탕탕 치면서 뭐 하는 거야 잠 자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선배를 깨웠어. 선배를 깨워서.
아니 불은 안 들어왔는데 어디서 타각타각 소리가 나 이랬더니 '뒤에 올려 뒤에 올려' 이러더라고. 뒤에 뭘 올린다고. 이러더라고. 난 모르니까 들어간 지 얼마나 되니까. '뒤에 올리라고' 그래서 나는 뭘 올리라고 일어나서 좀 가르쳐 줘 봐. 그랬더니, 동양화학은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는데 거기 스위치를 저기가 전기가 나가면 그 발전기를 올리는 게 있더라고. 그걸 딱

올리면 되는데 내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저 잔다고 발로 그냥 창창 차고 그랬어. 그런 실수.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면담자: 굉장히 큰 실수죠. 그 기계가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

구술자: 그런데 이제 그때 한 번 알았으니까 이제 알게 되었지.

면담자: 네. 근데 그 스위치가 꺼져 있어.

구술자: 아니 올려야 되는 거야. 올려야 되는 발전하는 스위치를

면담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켜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구술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스위치하고 또 달라요.

면담자: 그 교환 안에 그 불빛이 들어오는

구술자: 예 그러니까는 저기 전기가 나갔는데 그 스위치를 발전하는 스위치를 올리니까는 물이 딱 들어오더라고 보니까는

면담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두드린 사람은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일도 안 하는 줄 알고 자느냐고 소리 지르고 있었구나.

6. 남편과 동양화학 사내 커플이 되다(00;40:02~00:43:02)

면담자: 그러면은 그 에피소드 중에 재밌는 거가 그거일 것 같은데요. 지금 남편분하고 교재 그거는 이따가 여쭐까요? 남편분이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술자: 그거는 영등포에서 다니니까 너무 버스 저기 그때가 요금이 얼마였는지 몰랐어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천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내가 방 얻겠다 그랬는데 그 옥련동에 사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방이 하나 났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일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어, 갔는데 안집이랑 부엌이 딸려있는 부엌이더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얻겠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두 분이 사시더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저씨가 그 방에서 살다가 한 부엌이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갔더라고 또 그 동네로.

면담자: 자취를 하셨었나요?

구술자: 우리 시어머니하고 둘이 시어머니가 와서 밥 해줬어. 그랬는데 이제 방은 비어 있어서 그래 나 그럼 오겠다. 그래 왔는데 그 안집의 딸이 저기 우리 아저씨하고 소개를 해 준 거야.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면담자: 그럼 두 분을 잘 아는 사람이 중매를 해 준 거네요. 소개를 해 준 거네요.

그렇죠 아저씨도 잘 알고 이제 선생님도 잘 알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니까 회사 내에서는 주변에서 눈치를 채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구술자: 같이 안 다니지 같이 안다니죠 소문나니까.

면담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분이 동양화학에 다니고 계실 때인 거죠.

구술자: 그렇죠 그렇죠

면담자: 네네 그건 좀 더 있다가 더 이제 제가 궁금하면 여쭐게요.

7. 동양화학 근무 이야기?(00:43:03~00:47:44)

면담자: 짧게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3~4년이면 회사나 주변의 어떤 큰 변화는 못 느끼셨겠어요?

구술자: 없었어요. 거기 거기 이렇게 동양화학에 이렇게 이제 저기 사무실 지은 것 같으면 이 정문이고 들어가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있었어요.

면담자: 아 정문에요? 정문 주변에?

구술자: 여기 여기가 정문 같으면 큰 길이 있는데 여기 조그만 구멍 가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쬐끔해요. 내가 거기 가봤는데 조그맣고, 조금 더 가면 동양식당이라고 있었어요.
동양식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밥 먹고 회식하면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는 뭐 차 마실 때도 없었어요.

면담자: 그러면은 혹시 근래 거기 지금은 이제 호미 마을이라고 마을 가꾸기 하면서 호미마을이라고

구술자: 네 네 내가 가봤어요. 거기 동양화학 뒤에 있어요. 지금은 우리 성당 뒤에 있어요.

면담자: 예 저도 가본 적 있거든요. 동양식당도 봤어요. 그럼 그 옆에 매점이 있었다는 거죠

구술자: 아니지 좀 못 가서 회사에서 정문에서 조금 더 가면 개인 저기가 있어 매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기숙사 그 밑에 매점이 있었어요. 식당 있고 매점이 있었어요.

면담자: 근데 그 매점 얘기를 왜 꺼내신 건지 제가 이제 그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여쭙는데 그 매점을 말씀하셔서 그게 변한점인지.

구술자: 아니 그 매점은 동양화학 내에서 한 거예요. 그 매점은.

면담자: 동양화학 매장 매점이에요. 그럼 거기 많이들 이용했겠네요.

구술자: 이용했는데 우리들은 전부 남자들만. 동양화학에서 여직원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면담자: 제가 동양화학에서 여공이라고, 여성 노동자 포장하는 분 인터뷰를 했었어요.

구술자: 네 몇 사람이 있었어요.

면담자: 그분이 지금 이제 저기 호산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포함해서 총

구술자: 아니야 그런 분은 포함 안 하고 여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교환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해갖고 정규직.

면담자: 사무실 직원 현장직 빼고 사무실 직원이 한 20만

구술자: 현장 직원은 여자분들 좀 아줌마들 몇 명 안 됐을걸요.

면담자: 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포장하는 그 부서만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면담자: 그러면은 제가 회사의 주변에 변하는 모습 그런 거를 여쭤잖아요. 그 회사 복지는 어땠었어요?

구술자: 그때는 복지라고 그렇게 한 거는 없어요.

면담자: 이제 여러 사람 인터뷰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때 새인천 풀장이라고 기억하세요 직원들이 이제 거기 그냥 공짜로

구술자: 예 그거는 티켓은 줬어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공짜로 줘가지고 거기 많이 갔어요.

면담자: 그러면 동양화학이 아주 급성장을 한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소다회를 생산하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면 성과급이라고 해서 1년 매출이 예상보다 월등히 높았을 경우에 보너스 격으로 더 주거든요.

구술자: 100% 더 줬어요.

면담자: 근무하시는 내내 1년에 한 번 정도 성과급

구술자: 예예 더 줬어요. 보너스 600%인가 그랬는데 특별히 특별 보너스를 해가지고 100% 더 준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면담자: 그리고 명절 때는 선물 같은 거

구술자: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면담자: 그런 게 다 복지죠. 그리고 생일 때 생일 케이크.

구술자: 그런 건 없어요.아 생일 케이크 줬다. 생일 케이크 줬어요. 용현 고개에서 저기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티켓 줬어요.

면담자: 그곳이 그때 제과점이었어요?

구술자: 그때 용현 고개 그때 제과점

면담자: 그러니까 지정된 거죠. 거기가

구술자: 예 예 예 예

면담자: 그러니까 빵집이었나 봐요.

구술자: 용현고개에서

면담자: 혹시 돼지고기도 줬다는 얘기

구술자: 돼지고기도 줬어요

면담자: 그럼 그것도 지정 정육점이었었어요.

구술자: 그거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줬어요. 우리 사무실은 안 줬어.

면담자: 그러시구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만

구술자: 저기 뭐야 안 좋을까 봐

면담자: 그죠. 분진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8. 이회림 회장님과의 추억(00:47:45~00:51:33)

면담자: 회장님은 뵌 적 있으세요? 이회림 회장님.

구술자: 이회림 회장님 봤죠.

면담자: 어느 때 보셨어요?

구술자: 회사에서 뭐 할 때 나오죠?

면담자: 큰 행사나

구술자: 행사 있을 때

면담자: 그냥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는 정도.

구술자: 네 먼 발치에서 봤지. 저기 뭐야 회장님의 농장에도 많이 놀러 가고 그랬는데요.

면담자: 회장님 댁 농장이요? 어디에 있어요?

구술자: 미금시에 있었어요? 미금시

면담자: 미금시?

구술자: 의정부 있는데 거기

면담자: 무슨 농장이에요?

구술자: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옥수수도 막 심고 뭐도 심고. 거기가 너무 넓어 갖고 우리 아저씨가 저기 뭐야 입사가 9월 2일날 했는데 입사 동기가 8명인가 있었어요. 그 모임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소장님으로 가서 있었어. 그래서 거기 놀러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소고기 그냥 개고기도 구워 먹고.

면담자: 그 농장에 가서?

구술자: 별장도 있고 그랬어요.

구술자: 그리고 집도 군데군데 그냥 하나씩 뜨문뜨문 있더라고

면담자: 그러니까 주로 농산물 이런 거 심은

구술자: 그런데 그거는 뭐 소 이런 거를 사료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넓었어요. 근데 회장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이북 사람이니까 이 경제 관념에 대해서 그랬는데 저기 그 땅을 옛날에 뭐 100원에 샀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면담자: 그럴 수 있죠. 그 시절에는

구술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환수 했던 말이 있던데 나도 정확한 건 몰라요.

면담자: 그러면 동료들 사이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이회림 회장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이런 거 좀 간접적으로 들은 적 있으세요?

구술자: 그 회장님은 굉장히 경제 관념이 강한 사람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개성이라

면담자: 굉장히 알뜰하셔

구술자: 월급 타면 연탄 사고 쌀 사고 또 뭐라고 그랬더라. 그거 내가 들었어요.

면담자: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렇게 탄탄하게 챙기라는 뜻

구술자: 그것부터 먼저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먼저 해.

면담자: 거의 훈화처럼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걸 얼마나 강조를 하셨길래 여러분이 기억을 그렇게 하더라구요.

구술자: 그거 그만하라고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랬다니까요.

9. 교환원 퇴직과 소회 (00:51:34~00:53:01)

면담자: 선생님은 이제 70년도까지 다니시고 퇴사를 하셨지만 언제까지 동양화학에 교환원이 있었는지는 혹시 아세요?

구술자: 그거는 모르고 내가 그만뒀으니까

면담자: 그때 전반적으로 기업체 교환원이 이제 사라지던 그 시대에 같이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다른 분야로 이제 넘어갈게요. 혹시 일하신 분야에서 더 혹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일하면서 어땠었다라든가 뭐 특별히 더 보태서 하시고 싶어.

구술자: 그냥 나는 교환실에서 근무한 게 재미있었어요.

면담자: 재미있었고 그런 교환원이라는 그런 직종 직업에 대해서 이제 뿌듯하시고

구술자: 나는 괜찮았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괜찮았어.

면담자: 일반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통 여성분들이 일하시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인천에도 방직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 앞에 동양화학 주변만 하더라도 흥안방직이며 한일 방직도 있고 근데 이제 교환하는 그저 회사에서

10. 사내 결혼과 가족의 삶(00:53:02~00:56:24)

면담자: 사내 커플이었잖아요. 두 분 만남이 아까 소개로 만나셨고,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70년도에 했어요 70 몇 년도인지는?

구술자: 70, 70년도에

면담자: 70년대 초 70년대 초

구술자: 70년도 그때

면담자: 70년대 초 그쵸 그때 회사 퇴사

구술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만

면담자: 동시에 이제 결혼하시면서 퇴직. 몇 월에 결혼하셨어요?

면담자: 아 70년 대가 아니라 70년도. 나는 계속 70년 대로 제가 알아들어서 계속 70년. 네 알겠습니다.

지원자: 몇 월에 결혼하셨어요? 혹시 생각나

구술자: 그때 5월인가 그럼

면담자: 5월에 신부. 예예. 저는 계속 70년대로 들어서 아까부터 그래서 제가 70년대 초인지 중인지 그게 자꾸 궁금해서 70년 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었구나. 제가 한 음절을 잘못 듣는 바람에 그 당시에 사내 결혼이 흔치가 않았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구술자: 한 세 팀 정도 있었어요.

면담자: 동양화학 내에서 사내 커플이 세 팀 정도. 근데 사내에서 이렇게 서로 만났다기보다는 옥련동 그 밖에서 소개를 받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사내 커플로 이제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회사에서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별도로 지원되는 거.

구술자: 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었어요.

면담자: 그렇구나. 그런 거는 그냥 동료들 축하해 주고 또 결혼식 때 동료들이 많이 참석을 했겠네요. 그러면 세 커플 정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1호예요? 처음에 그 전에 있었어요?

구술자: 내가 한 2호 정도

면담자: 2호 커플. 그러면은 결혼하고 퇴사하시면서 몇 년 정도 가정주부로

구술자: 애들 키울 때는 집에서 애들만 저기 했죠

면담자: 몇 남매 두셨어요?

구술자: 딸 부자예요. 딸 넷이예요.

면담자: 딸 넷 다복하시네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딸 많이 낳으면 그렇게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구술자: 지금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설움을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선호해 가지고

면담자: 장남이예요?

구술자: 아니요. 둘째인데 시어머니가 아주 그랬어요.

면담자: 많이 시달리셨어요? 그러니까 둘째인데도

11.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양상(00:56:25~01:05:35)

면담자: 이제 이야기를 좀 다시 바꿔서 이 마을에 대한 걸로 들어갈게요. 처음 옥련동으로 오시고 출퇴근 여기 학익동으로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옥련동도 바로 옆에니까 학익동 용현동 중심으로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대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출퇴근길 기억하는 거는

면담자: 옥련동에서 여기 회사는 걸어 다니셨어요?

구술자: 걸어 다녔어요.

면담자: 바로 옆에니까

구술자: 그때 합성이라고 이만한 거 있었어요. 한 몇 명 타나? 이렇게 적은 거. 버스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 철길로

면담자: 네 그래서 그 주변 풍광

구술자: 주변에 지금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그 저기였었어요. 바다. 바다에서 맛, 있잖아요. 내가 혼자 이렇게 가다 보면 맛이 올라와 바다에

면담자: 맛살이라고 하는 길쭉한 거

구술자: 쭉 올라갔다가 또 쑥 들어갔다가 게도 조그만 게들이 그냥 돌게가 쭉 올랐다가 쭉 들어가고. 그런 게 나는 내륙 지방의 사람이라 그런 걸 못 봤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

면담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장 주변 여기 학익동 요 주변은 어떤 기억 있으세요?

그쪽으로 바로 회사 앞에가 바다였었으니까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 당시에 우리 옥련동도 사시는 데도 바다였었어요?

구술자: 아니요. 거기는 산 밑이었어. 옥현동 산이 이렇게 있고 철길이 있고 여기 동네인데 거기는 바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바다를 가려면 더 가야지 저 앞 동네에서 더 가서

면담자: 네 그러니까 요 주변이 이 공장 주변이 바다였었던 거죠.

구술자: 거기 정문에서 앞쪽으로 저기 지금 삼광유리네. 저기 인천 방송 그쪽으로

여기 송암미술관 자리에요. 여기 연구소 자리.

면담자: 삼광 유리가 어디 지도엔가 그려져 있었는데

구술자: 유니드도 있고 여기가 이런 데가 다 바다였었어요.

면담자: 옥련동이 그러면은 여기가 삼광유리이면은 출근길이 이렇게 걸어

구술자: 예예 이렇게 갔어요.

면담자: 이렇게 삼광 유리로 해서

구술자: 아니요. 삼광유리로 안 가고 그냥 그 철길로 가 가지고 조금만 가면 동양제철 정문이예요.

면담자: 여기 이렇게 오시는 출근길이 요 앞에가

구술자: 철길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더라고

면담자: 보통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도보로

구술자: 얼마 안 걸렸어요. 금방예요.

면담자: 뭐 한 2, 30분이요.

구술자: 아니야 무슨 2, 30분이야 금방 금방예요. 그 철길로 쭉 가면 한 10분.

면담자: 심심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바다의 풍광을 보면서 재미있는 풍경을 보면서 걸으셨으면 다른 거는 혹시 생각나는 주변의 모습. 그러면은 제가 여기 질문 중에 쓴 도살장이라든가 집창촌이라든가

구술자: 그쪽으로는 가지를 안했어요.

면담자: 그거는 좀 떨어져서 여기에서.

구술자: 우린 정문에서 그 동네 집으로 가니까 애들은 버스 타고 다른 친구들은 시내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는 안 가봤어요.

면담자: 그러셨겠네요. 그리고 결혼하시면서는 어디에 신혼살림

구술자: 거기 옥련동에서.

면담자: 옥련동 그쪽으로. 그럼 결혼하시고 나서도 이 동양화학 앞쪽으로 학익동 여기는 이제 거의 드나들지 않으신 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갈 일이 없죠.

면담자: 그러면 옥련동에 몇 년 오래 사셨어요?

구술자: 거기서 한참 살았어요. 방 한 칸에. 흙 부엌이고 방 한 칸에 딸 둘 낳았을 때까지. 우리 큰애가 4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면담자: 그러면 동양화학 공장이 들어설 때 그때 입사를 하시면서 결혼 한 3 ,4년 후에 이제 결혼하시고, 옥련동에서 사셨기 때문에 어떤 이 주변에 큰 변화라든가 그런 거는 잘 못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근데 지금은 전부 아파트촌이 아파트 촌이라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면담자: 지금하고는. 그렇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야말로 바다가 땅이 되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시는 동안 그 회사 생활하시는 동안 큰 변화는

구술자: 큰 변화는 없었어요.

면담자: 왜냐하면 동양화학이 급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큰 건물들이 회사의 그 건물들이 많이 속속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혹시 하시나 해서 그러면은 회사 건물 외에 주변에 시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어떤 교통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거 변화를 느낀 적은 언제세요?

구술자: 없었고요. 옥련동 살면서 용현시장을 다녔어요.

면담자: 용현 시장으로

구술자: 용현시장을 다녔어요. 그것도 철길로 애를 하나 업고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면담자: 그러다가 대중교통 이용하시게 된 시점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구술자: 그리고 한참 후예요. 그때는 돈을 굉장히 아꼈으니까

면담자: 돈을 아끼는 걸 떠나서 보통 웬만한 거리는 다 도보러 다녔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했던 시점은?

구술자: 그건 별로 기억이 없네요.

면담자: 상가도 좀 번성하고 이 마을이.

구술자: 상가 별로 없었어요. 여기는.

면담자: 어떻게 보면 동양화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에 비례해서 주변에 상가나 학교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성장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동양화학이라는 이 회사가 이 동네의

랜드마크 같은 상징적인 그런 이제 존재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주 큰 변화를 느끼시는 그런 기억을 하시고 계신가 해서.

구술자: 아니요.

면담자: 그러면 공장하고 이 지역사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은 거, 아니면 남편분한테서 들었다든지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동양화학 뒷마을 지금 호미 마을이라고 했던 곳이 되게 땅이 굉장히 질퍽거렸대요.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거기 도로 포장도 해주고 이게 아무래도 회사가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소다회도 있지만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어떤 유해 요소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또 주민들 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이제 이런 관계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은 특별한 기억은 없으셨어요?

구술자: 없어 없어요

면담자: 들은 얘기 이런 거는 없으셨구나. 옥련동에 사셔서

면담자: 좀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화학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거 들은 얘기 있으세요? 소음이나 냄새 이런 거 직접 체험하신 경우가

구술자: 그건 잘 모르겠고 연기는 많이 나더라구요.

면담자: 연기 그러니까 재직 시절에 일하실 때 굴뚝에서. 이게 소다회나 이런 거를 구워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못 느끼시고

구술자: 몰랐어요.

12. 퇴직 이후의 삶(01:05:36~01:09:10)

면담자: 70년도에 퇴사를 하셨는데 결혼하시면서 퇴사를 하신거고 그럼 퇴직 후에는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가정 전업 주부로.

구술자: 전업주부로 정신없이 살았죠.

면담자: 지금도 보시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냥 전업 주부로 아이들 교육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이러는 거에 그냥 만족하셨어요?

구술자: 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내가 이제 그때부터 막 인하대 시민대학 다니고. 가까우니까 걸어 다니까 이리로 이사 왔었어요. 주안3동으로. 동서우유 있는 데로 이사 왔어.

면담자: 그러면은 결혼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남편분 혼자서 이제 버신 거잖아요.

그때 소다회 공장 이제 급여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생활하는 데는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는 안 살았어요.

면담자: 네 그만큼 남편분 급여가 이제 괜찮았다.

남편분은 몇 년도에 입사해서 몇 년도에 퇴사하셨어요?
구술자: 우리 아저씨가 내가 여기 적어왔어요. 68년도에 입사해서 퇴사는 96년 3월 며칠이라
면담자: 한 30년 정도 다니신 거네요.
구술자: 또 그러고 또 또 다녔어요. 한 달 쉬고. 명예퇴직을 60명 한목에 했어요. 그때. 우리 아저씨하고 그 사진에 나온 홍규선 공장장님하고. 한 달 쉬고 동양산업이라는 데로 또 들어갔어.
면담자: 동양 산업? 계열사예요? 이 주변예요?
구술자: 아니 거기 동양화학 안에서 일했어요.
면담자: 혹시 하청업체?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거기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구술자: 그때는 저기 사원 아파트라고 저기 조개고개 가는 데 거기 있었어요.
거기 소장으로 있었어요.
면담자: 사원 아파트 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구술자: 예. 관리소장
면담자: 관리를 하라고 이제 회사에서 아파트 관리하라고 언제까지 그럼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구술자: 이때가 한 53세에 명예퇴직을 했지 아마. 그랬는데 저기 한참 거기 일했어요.
근데 난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어요.
면담자: 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남편분 따로 질문할 때 다시 하구요,

13. 현재 활동과 삶의 의미(01:09:11~01:22:25)

면담자: 지금 현재 실버 기자단으로 활동하시고 계신거죠? 그리고 그전에 평생학습관, 시민교육 다양하게 이제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구술자: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컸잖아요. 컸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했으면 내가 얼마나 저기했겠어요 그런 것도 있죠.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래 갖고 그냥 여기저기 다녔어요.
면담자: 그러면 그 평생학습관 시민기록단은 뭐 당연하고, 졸업하시고 난 후에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구술자: 아니 그전에도 했죠. 이야기 할머니 그전에 했어요.
면담자: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가 그 노인 인력? 지금도 이게 있거든요.
구술자: 네네 거기서. 지금도 있어요
면담자: 하시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시고 재미있게 하시는거죠.
그러면 지금 실버 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거는 저희처럼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구술자: 그게 아니고 거는 아니고 내가 실버 기자단으로 옮긴 이유는 우리 아저씨가 편찮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두고 나오기가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면담자: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예요?

구술자: 네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면담자: 무슨 자료를 여기 단체에서 주면 집에서?

구술자: 아니요. 이야기 할머니는 자료를 줘요. 옛날 이야기 자료를 주는데 여기는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발로도 뛰고 미추홀 복지관 같은 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냥

면담자: 그걸 글로 쓰시는 거예요?

구술자: 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야단도 맞고 그래요. 이게 처음이라 저도 좀 버벅대요.

면담자: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세요?

구술자: 예. 올 해 들어갔으니까

면담자: 네 곧 익숙해서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세요?

구술자: 내가 이야기 할머니 할 때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 애들 키운 경험으로 생각해서 저기 뭐야 자라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더라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나도 그냥 같이 동요도 부르고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애들은 할머니 하고 반가워하고 또 그냥 또 내가 복지관에서 하모니카도 배워갖고 배워갖고 동요 불러주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애들이

면담자: 유치원에 가시는 거예요?

구술자: 유치원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그래요. 좋아해서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그래요.

면담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거는요?

구술자: 현재는 조금 재미가

면담자: 하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구술자: 아니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일지 내러만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 다 파악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소식은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뉴스나 또 저기 인터넷 뉴스 이런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미술 복지관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거

면담자: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하시는 건가 보다. 소감 소감문 작성하고. 그런 행사나 이렇게 다녀오시고 난 뒤에 이제 글 쓰시는 거예요?

구술자: 네.

면담자: 네 모니터링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들한테 우리 엄마는 어땠었다 어떤 평을 받고 싶으세요?

구술자: 난 평을 을 받고 싶다는 데 그냥 보통 엄마예요. 보통 엄마인데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칠십둘에 다녔잖아요. 남인천 고등학교를. 그래도 노력상 받았어요. 낮에도 일하고 병행했는데 그런 거는 좀 애들이 알더라고요.

면담자: 학구열 있으시고 또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어머님의 그런 성취 욕구가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구술자: 그런 건 좀 있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좋아하나봐요.

구술자: 애들은 좋아하죠. 저는 저희들은 손 안 벌리니까. 내가 손 안 벌리니까.

면담자: 비록 좀 짧게 근무는 하셨지만 동양화학에서 근무하셨고 동양화학을 지켜보셨고 또 그 주변 학익동 용현동을 좀 지켜보셨고 현재까지도 가까우니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도 이렇게 들어서고 그러니까 대변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다면. 동양화학 포함. 이 주변에 대해서.

구술자: 옛날에 옛날에는 내가 저기로 다닐 때는요. 석탄을 싣고 기차가 동양화학까지 왔어요.

면담자: 맞아요. 석탄을 실어 날랐어요. 돌도 실어나르고.

구술자: 예. 돌도 실어 나르고 석탄 까만 석탄 있잖아요. 그걸 막 이만한 저기에다 그냥 실어다 나르고. 또 하여튼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봤고 그 앞에 뭐 이렇게 폐기물인지 뭐 뭐 이렇게 막 싸놓은 것도 있어서 막 이렇게 싸놓은 거서 용현동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면담자: 그 쌓아놓은 게 뭔지 혹

구술자: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 쪽으로는 몰라가지고.

면담자: 석회 석회석

구술자: 예. 석회석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면담자: 그런 거 쌓아놔서 동네 주민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항의하고 이러기도 했나 봐요.

회사 내에까지 들어와서

구술자: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면담자: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셨어요?

구술자: 아니요. 그랬다. 그냥 사람들이 다 들은 얘기예요.

면담자: 그런 부분이 이제 인상 깊으신 거예요? 들은 얘기들 그러니까 석탄 실은 기차가 왔다 갔다

구술자: 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기 보니까 저 아파트가 쫙 들어섰어.

접대 성당 갔다가 한번 이제 누가 비 오는 날에 거기까지 이렇게 삥 돌아가는데 학익역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면담자: 학익역 생길 예정예요?

구술자: 아니 지금 지고 있대요. 인하대역이고 그다음이 저기 학익역이 있고 그 동양화학 앞에 학익역 있고 송도역 이고 중간에 거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 바퀴 빙 돌아가다가 '야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보니까는 옛날에 저기 사무실 건물에 사무실 지었거든요. 그건 있더라고

면담자: 어떤 건물요?

구술자: 사무실 건물 앞쪽으로

면담자: 어떤 사무실 건물

구술자: 지금도 있던데요. 보니까

면담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어떤 건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뭔지는 어떤 건물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 건물이 있더라.

구술자: 그 건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둘째 딸도 동양화학을 다녔거든요.

면담자: 둘째 딸도요?

구술자: 근데 그때 사무실에 내가 갔었는데 그 건물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를 뭐 해서 사용하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면담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사무실인지도 모르시고

구술자: 아니 뭐 저 위에 공장에서 있던 사무실이 이쪽으로 다 나온 것 같아요.

길 옆으로. 길 옆으로 그게 4층짜리인가 몇 층짜리인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면담자: 그러니까 그 흔적만 남아있는거예요?

구술자: 예 있어요.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큰 길 옆에

면담자: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옆에 지원자에게 묻는 말)

그리고 고층 아파트 빽빽히 들어서고 완전히 다른

구술자: 완전히 달라졌어.

면담자: 오랜만에 와보는 사람은 그 흔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과거의 그런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그것도 동양화학이 제조업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사를 보면 제조업체는 우리 서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아파트가 다 이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술자: 근데 지금 농산물들 다 수입이잖아요. 70%가 수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먹거리를 우리 땅에서 심어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면담자: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아파트로 막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농산물

구술자: 네

면담자: 예전에는 여기가 다 논과 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구술자: 돈이 안 되겠죠.

면담자: 돈이. 근데 우리 농산물 이러다가는 우리 농산물 생산도 그렇지만 그건 진짜 큰 일인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일하셨던 터전인데 그 흔적이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어떤 생각 드시는 거 없으세요? 내가 일했고 우리 남편이 일했고 우리 또 둘째 딸이 일했던 곳인데 흔적 없이 살아지는거에 대해서.

구술자: 저는 동양 소다회가 독과점 품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아랫녘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군산으로 갔다고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거기는 저는 대학도 지었다. 어쨌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된대요.

면담자: 네네. 맞아요. 또 냉각수를 하려면 바닷물도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시기적으로 시대상 어쩔 수가 없다?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선생님이 동양학에서 교환원으로 일하셨던 그런 경험은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요?

구술자: 하, 어떤 의미라.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겠죠. 그때는.

면담자: 그리고 또 그 직업에 대해서 또 만족을 하셨고.

구술자: 나는 만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만족했어요.

면담자: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젊은 20대 그 시절을 교환원으로 일한 거에 대한 만족.

저희가 이제 말씀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세에서 아니면은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 줬으면은 좋으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시던 시절은 이래 이랬었다. 뭐 그런 거를 후손들이 많이 알아줬으면은 좋겠어요? 아니면은 좀 후손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구술자: 옛날에는 뭐든지 다 수기로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AI 시대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면담자: 아 역시 되게 학구적이시고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14. 남편과 둘째딸이 동양화학에서 근무했던 이야기(01:22:26~01:52:22)

면담자: 그러면 남편분 얘기를 좀 더. 그전에 아까 둘째 따님이 동양화학 다녔다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구술자: 걔는 사무실에서 근무했어요.

면담자: 어떤 계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따님은?

구술자: 딸은 맨 처음에 ,우리가 딸이 많잖아요. 원래 우리 아저씨 혼자 벌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는데 큰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얘는 걔만은 못 했어. 둘째는. 그랬는데 앉혀놓고 물었어. 내가 '야 너는 너 대학 갈 거지?'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엄마 나는 그냥 대학 안 가고 우리 아빠 혼자 있어서 힘들 것 같으니까는 나는 여상 가서 그냥 돈이나 벌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냐 나 너 대학 간다 그러면 그냥 보낼 거야.'
나는 그랬더니 '아니여 그냥 나는 여상 가서 돈 벌 거야.' 그래서 고1 때 자격증을 5개를 따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저기 뭐야 외환은행에 했는데 키가 적어서 떨어졌어요. 나 닮아가지고 떨어졌어. 그래 가지고 동양화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면담자: 일반 사무직. 부서 이름은 생각안나세요?
구술자: 환경관리과지 아마.
면담자: 지금은 결혼 결혼 했죠. 나이가 40대거나 50대거나
구술자: 50대가 넘었어요.
면담자: 따님도 오래 다녔어요?
구술자: 그렇게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아 중간에 이제 다니다가 이제 애들이 여직원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대학 나온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벌이 딸리니까 지가 또 대학을 그래서 대학 갔어요.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다닐 거야' 이러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다녔어요.
면담자: 회사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계속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다녔어요?
구술자: 딴 데로 갔죠.
면담자: 그러면 따님은 공채로 들어간 거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주민 찬스?
구술자: 주민 찬스. 지네 아빠가 다니니까.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 있대요. 이렇게(엄청 많이 쌓였다는 얘기)
면담자: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 주변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계공고 이런 데는 뭐 한 7, 80명씩 입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민들도 공장에는 채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구술자: 지네 아빠가 다녔으니까.
면담자: 그렇죠. 가족들한테는. 혹시 이번 인터뷰한다는 걸 남편 그러니까 남편분이 소통이 불가능하세요?
구술자: 요새 딸꾹질을 해요. 이틀째
면담자: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술자: 예 오늘도.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밤에 나 여기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하대 병원에 응급실 갈라그랬었어요. 딸꾹질을 심하게 아주. 꿀물을 타서 먹이면 괜찮고 또 조금 이따 또 그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면담자: 그래서 병원에는 안 가도 될 정도

구술자: 그래서 이제 집에 또 가봐야지. 이제 아까 그친 거 보고 왔는데

면담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지 드린 것처럼 그냥(남편분의 동양화학 재직 경험에 대한 질문지를 따로 드렸음)

구술자: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 아저씨 걸 적어 갖고 온 거

면담자: 네네 그러면은 들으신 얘기에 한해서. 그러면 남편분은 어떻게 해서 동양화학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구술자: 지인의 소개로 들어가

면담자: 여기 그때 옥련동에 사셨을 때요?

구술자: 아니요 아니요. 시골에서 제대하고 있을 때 그때 지인의 소개로 들어갔어.

면담자: 그럼 시골 어디예요?

구술자: 경기도 광주

면담자: 경기도에서 그러면 인천의 동양화학으로 들어오신 거네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PVC 회사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소다회 공장으로는 어떤 계기로 옮기신 거예요?

구술자: 거기 피플랜트가 아마 문을 닫았죠. 아마. 닫아가지고 이제 좀 착실한

면담자: 피플랜트가 PVC회사?

구술자: 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면담자: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소다회 공장으로 오신 거예요?

구술자: 아니 위에서 회사에서.

면담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평소에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구술자: 소다회 공장에서 증조 공장에도 있었고 솔트라는 데 소금, 거기서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생산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교대 근무 3교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애들이 여러 명 낳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주무셔야 되니까는 내가 저 뭐야 야근하는 날은 애들을 업고 바깥으로 나가. 집에서 조용히 자라고.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공무과로 옮겼어요.

면담자: 아하 그래서어. 그게 그렇게 하기에는 가족들도 힘들고. 그럼 공무 부서에서는 무슨 과 공무 부서에도 여러 과가 있잖아요.

구술자: 거기서 기계 수리 이런 거 했대요.

면담자: 기계 기계과

구술자: 그래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면담자: 그럼 기계 다루는 일을 하셨어요? 예 기계 고치고 수리하고 이러는 거? 그럼 소다회 공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하셨어요? 일한 기간이?

구술자: 거기는 보자. 거기는 생산과에서는 많이 있지 않았어요

면담자: 그러면 잠깐 일하셨지만 힘들어 하시거나 그때 들은 얘기 있으세요?

구술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저기 PVC에 있을 때 그때는 그 판넬을 보고 이 공장 전경을 다 볼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일을 하는지. 뭐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이제 게이지가 다 표시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이제 맨 처음에 중조 공장에서 일했어요.
면담자: 힘들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으세요?
구술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면담자: 특히 몸에 막 이렇게 힘들다거나.
구술자: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면담자: 그럼 그 소다회가 독과점 품목이기도 해서 되게 좀 익숙한 풍경들은 아니었잖아요. 그 생산품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낯설고 좀 신기하다든가 이렇게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구술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공무 부서에서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28년 다니시면서 소다회 공장에는 잠깐 있으셨다고 했고
구술자: 이제 여기는 야근을 안 하니까
면담자: 그러면 급여 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거긴 야근 또 하니까. 근데 기계과도 야근하셨어요?
구술자: 할 때도 있었고 아니 낮에만 했어요.
면담자: 낮에만 낮 근무만. 그럼 급여에서 차이 나지는 않았었어요?
구술자: 그런데 그때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동양화학이 월급이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면담자: 맞아요. 네
구술자: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여섯 식구인데 다 살았지. 애들 대학까지 다 시키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했죠.
면담자: 외벌이 하시면서 네.
구술자: 나도 알뜰이 했지만
면담자: 네. 그러면은 기계과에서 일하시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술자: 기계 고장나고 그러면 고치고
면담자: 그러면 그거를 그 기술을 따로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신 거예요? 일하면서 옆에 동료들한테 배우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학원에서 따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겠네요
구술자: 그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학원 다녔어요.
면담자: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아니 회사에서 이제 그런 배워라 학원 가서 좀 배워와라 이런 거였었는지.

구술자: 아니 우리 아저씨가 생산과에서 근무할 때 이제 야근하니까 애들도 문제 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는 본인이 자청해서 한 거예요.
면담자: 아니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시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배우면은 안 되고 학원에서도 따로
구술자: 학원에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았어.
면담자: 그럼 일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병행을 하신 거였었죠. 그러면 기계과에서는 승진을 한다거나
구술자: 승진 하기가 힘들어
면담자: 기계과에서는요 아니면 아무튼 어떤 조건이?
구술자: 왜냐 왜냐하면 자기 후배들을 다 끌어올리고. 기계과 높은 사람이 기계 공고 나왔으면 기계 공고 다 끌어올리고. 어느 대학 나왔으면 어느 대학에서 다 끌어올리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면담자: 그러면 기계과에서도 공고나 공대 출신도 많았었어요? 남편분께서는 그 전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구술자: 우리 아저씨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
면담자: 인문고등학교. 그러면 그런 틈새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힘드신 점 혹시 특별히 어떤 면이 힘들었다라고 전해 들은 이야기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그 연고가 참 중요하잖아요 학연, 지연 그런 거가 중요한데 그 틈새에서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나
구술자: 저기 뭐야 승진할 때 그럴 때 자기 기계공고 후배를 끌어올리고 또 한양대 나왔으면 한양대를 끌어올리고 서울대 나왔으면 서울대 자기 후배를 끌어올리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면담자: 그러면은 남편은 선후배 동문은 전혀 없었어요?
구술자: 없지요.
면담자: 없으셨구나. 인천에서 학교 다니셨어요?
구술자: 아니야 경기도 광주
면담자: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승진을 하셨어요?
구술자: 못 했죠 평사원으로 있다가 이제 급수는 올라갔지만.
면담자: 그렇죠 호봉은 올라갔지만
구술자: 관리소장으로 끝난 거지.
면담자: 기계과에서 퇴사하시면서 관리소장으로.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고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또 따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러면은 소다회 공장 근무 당시에는 어떤 들으신 얘기가 특별히는 없었던 거죠.
구술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면담자: 지금 생각해 보면, 동양화학에 어쨌든 남편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건강 문제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안전 사고에 문제가 있진 않으셨었죠? 건강 문제와 연결해서 어떤 문제점들은?

구술자: 그건 없었고 우리 아저씨가 운동을 좋아해서 70까지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맨날 노심초사하고 있더니 그 파킨슨병이 오더라구.

면담자: 그렇게 장수를 하셨는데도

구술자: 둘이 절친이었어요.

면담자: 모자 지간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사셨으니까 그러셨구나. 그 사이에서 지켜보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치만은 않으셨겠어요.

구술자: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103세까지 살았으면 호상이에요.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저 병이 났잖아요.

면담자: 그러면 남편분한테 드린 질문지 보셨잖아요. 이거 질문대로 해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메모하신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구술자: 9번에 송도고등학교

면담자: 9번에 <회사 행사에 관한 기억> 질문

구술자: 예. 회사 체육대회를 했는데 송도고등학교에서 했어.

면담자: 송도고등학교에서 한 해만? 아니면 체육대회는 매년 있지 않았어요?

구술자: 그거는 그건 잘 나도 모르겠어. 송도고등학교가 그 동양화학거예요.

면담자: 네 이회림 회장님이 이사장으로 4대 이사장으로.

구술자: 거기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 아저씨가 거기서 농악 놀이를 하더라고. 신나게 신나게 거기서 나는 못 마땅하더라고. 다른 사람들 선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간다나

면담자: 어머나 그 정도

구술자: 부부가 같이 아는 사람은 부부가 같이 타가지고 그냥 택시를 타고 대절을 해서 가는데 우리 아저씨 그거 하느라고 하나도 못 탔잖아요.

면담자: 속상하셨겠다. 우리 가정 주부들은 그 선물에 욕심 나거든요. 하하

구술자: 그리고 한 번 야유회 때도 여주 샛강으로 놀러를 갔어요. 공무과에서 놀러를 갔는데 우리 아저씨가 술을 못 마시는데, 술 한 잔 먹고 수영한다고 수영을 원래 잘해. 수영한다고 막 뛰어가더라고 나는 막 붙잡으러 그냥 뛰어갔어요.
거기서 생강에서 빠지면 죽어요. 거기는. 그랬더니 막 내가 불렀더니 이렇게 돌아보더니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수영하러 간다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붙들어 왔어요. 지금도 쌩쌩해요.

면담자: 수영을 잘하시지만 그래도

구술자: 깊은 데가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면담자: 동양화학 체육대회 야유회 이런 재밌는 기억들도 있으시겠네요. 가족 참여죠? 가족 단위. 다 참여하는 거죠. 주민들도? 자주 있었어요?

구술자: 자주는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사원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를 한 것 같으세요?

구술자: 아닌 것 같아

면담자: 회사 내 직원 가족들만. 또 뭐 있으세요?

구술자: 그냥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 다 대학을 시켰으니까 혼자 벌어서.

면담자: 그럼요. 대기업이었었는데요.

구술자: 다른 데보다 돈이 적은 것 같지는 않았어.

면담자: 네 인터뷰하신 분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급여 면에서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구술자: 우리 옆집에 호남 정유를 다녔는데 맨날 옷도 차려입고 그냥 삐끗 번쩍하고 다니더라고. 그래갖고 은행에 갔는데 얼마 탔어 그랬더니, 얼마 탔다고. 많이 타네. 그러더라고.

면담자: 또 뭐 메모한 거 있으세요?

구술자: 아 20번. 20번에 '퇴직 후에는 동양산업에서 이제 거기 조금 다니다가..'

면담자: 잠시만요. 선생님. 20번은 저는 없는데요. 그 질문 내용이 뭐예요?

구술자: 20번에,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

면담자: 20번은 아니고 네 아무튼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아, 앞에 앞쪽에 선생님한테 드린 질문이네요.

구술자: 동양 산업 좀 다녔고요. 몇 년.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또 아파트 경비도 다녔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 이야기죠.

구술자: 예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면담자: 아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퇴직 연세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근데 그 후로 또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고

구술자: 또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그것도 한 7년인가 8년인가 했어요.
그거 하고 이제 끝

면담자: 그럼 최근까지 일을 하신거네요.

구술자: 예 그 파킨슨 병이 있어도 다 일할 수 있어요. 약 먹어가면서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83세니까 또 허리도 다치셨어요. 그 운동하다가 하늘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면담자: 저는 이제 남편분이 혹시 소통이 가능하시면 남편분하고 같이 면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술자: 근데 딸꾹질을 하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면담자: 말씀은 보통은 얘기는 다 말씀하세요. 근데 기억력에 좀 한계가 있으신가요?

구술자: 얘기는 다 하는데. 그래도 뭐 치매가 온 것 같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계속 딸꾹질을 하니까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음성 녹음으로 해서 가져갈까 하다가 그냥 내가 물어보고 그냥 물어만 보고 그냥 여기다 메모해 왔어요.

면담자: 직접 물어보고 메모를 하신 거예요? 이제 다 말씀하신 거죠.
남편분한테 물어보신거.

구술자: 8번 남았는데 8번. '기억나는 사람이 누군가?'

면담자: 기억나는 사람 8번 지금 선생님 질문지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 문항 상관없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회사 그만두시고 나서 기억나는 사람?

구술자: 김상호 씨도 나고 홍규선 공장장님도 생각나고 이병환 씨

면담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다 아시는 분인데요. 김상호님, 또 홍규선 선생님 또 이병환 선생님.

구술자: 오중기 씨 이보연 씨 그렇게 생각난대요.

면담자: 제가 김상호님 그분은 모르고요. 홍규선 선생님하고,그리고 이병환 선생님은 저희 같은 동네라서 잘 아는데 이 두 분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럼 홍규선 선생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남편분하고

구술자: 회사의 공장장님이니까

면담자: 그때 좀 전에 처음에 봤던, 그 양지원 팀장한테 전화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퇴임식 할 때 그러니까 홍규선 선생님하고 악수했다고

구술자: 그 얘기죠 그거는

면담자: 그 장면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일할 때 홍규선 선생님하고.

구술자: 일할 때 그때는 거기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담자: 공장장이었었거든요. 공장 마지막에는

구술자: 맨 처음에는 경리과에 있었어.

면담자: 네네 맞아요.

구술자: 샤오용지랑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올라가서 보게 된 거죠.

면담자: 퇴임식 할 때 악수

구술자: 그리고 우리 동네 살았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서 살았어요.

면담자: 그때 어디라고 말씀하셨었죠?

구술자: 동아풍림이요

면담자: 홍규선 선생님이

구술자: 동아풍림 116동 아니 아니야 110동에서 살았어요.

면담자: 언제요? 언제죠?

구술자: 한참 오래돼서 월곶으로 이사가기 전

면담자: 젊으셨을 때 아니면

구술자: 아니지 퇴직 하고.

면담자: 퇴직하고?

구술자: 월곶으로 이사 갔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근데 지금은 그 석바위 거기서

구술자: 그리고 우리 애들 결혼식에도 다 오시고 그랬어요.

면담자: 그러니까 임원이 임원이잖아요. 홍규선 선생님이. 그러면 직원들 그런 경조사에는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홍규선 선생님이.

구술자: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동양화학 다니다가 결혼했으니까는 그때 오신 거 봤어.

면담자: 직원이었던 이병환 선생님하고는

구술자: 잘 알아요. 잘 알아

면담자: 남편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구술자: 공무과에서 같이 일했어

면담자: 맞아요.공무과에서

구술자: 같이 해서. 그거 나 부인도 잘 알아요. 옥이라고

면담자: 예 문옥이. 그러면 같은 과에서 이병환 님하고. 기계과 이병환 선생님이 기계를 전공하셨거든요. 기계과 같은 부서. 그럼 상사와 부하 직원.

구술자: 어 거기가 또 저기지

면담자: 그러면은 남편분이 지금 이병환 상사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시는데 상사나 동료들에 대한 기억은 어떻다고 하세요? 그 회사 내에 직원들 어땠었다

구술자: 내가 보기에는 이병환씨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았어. 괜찮은 사람 같아

면담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구술자: 우리 집에도 몇 번 놀러 왔었거든요.

면담자: 그냥 이렇게 평소에?

구술자: 나보고 주안 할머니 주안 할머니 그랬어요. 나한테 주안 할머니. 같은 이 씨거든요. 우리 아저씨도 이 씨고 그분도 이씨니까 나보고 주안 할머니 주안 할머니. 야외에 저기 갔을 때도 같이 갔었어요. 여주 샛강에 갔을 때도.

면담자: 굉장히 소탈하게 느껴지네요. 이병환 선생님이. 그 호칭에서도 보면 굉장히 소탈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직급의 차이가 있고 이런 관계인데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고

구술자: 그거는 거기 있다가 저기 어디야 삼광유리리로 갔지 아마.

면담자: 그분은 아주 근무하셨던 곳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도 가셨었고 군산에도 가셨었고

구술자: 그랬어요. 저기 신동아 어린이집 무슨 어린이집

면담자: 네 신동아 어린이집 있어요.

구술자: 아니 신동아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분도 성당 다니던데. 원장님도.

면담자: 저기 해승 유치원? 아 그분은 성당 안 다니고

구술자: 저기 저기 뭐야.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거기도 내가 꽤 나갔었어요.

면담자: 이야기 할머니로요?

구술자: 저기 주안3동 성당에서 독서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
거기서 거기 앞에서 저기 관리소 앞에서도 몇 번 봤어요. 이병환 씨. 우리 집에도 놀러도 몇 번 오고 그랬어.

면담자: 남편분께서는 동양화학에서 재직하시고 일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세요? 동양화학에 대한 기억을 정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아니면은,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동양화학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셨던 거에 대해서.

구술자: 오랫동안 나 열심히 해서 나도 열심히 다녔지 그러면서.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가 눈물이 글썽하면서 그러더라고.

면담자: 어제요?

구술자: 내가 경기도 광주에서 나오고 군대에서 나올 때 저기 뭐야 집에 저기 뭐야 실하고 바늘만 가지고 나왔대. 10원 돈 10원도 안 받았대. 나무 팔아가지고 풀 팔아가지고 차비 해놨다가 왔대. 인천으로. 그러니까 좀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나도 인정을 해서 그냥 나도. 그냥 편찮으셔서 드러누워 있지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면담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냥 무일푼으로 인천에 오셔서 동양화학에 들어가면서 큰 일가를 만드셨고, 그럼 동양화학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다면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술자: 글쎄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죠.

면담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기 지원자님 더 하시고 싶은 거

지원자: 질문하고 싶은 건 중간에 또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48년생이라고 하셨는데 48년 몇 월생 몇 월 몇일 생이세요? 호적 올라가 있는 걸로.

구술자: 호적에 올라간 게 48년이에요. 8월 1일.

지원자: 아까 고향은 언뜻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구술자: 경북 김천이요

지원자: 경북 김천이요.

면담자: 선생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세요?

구술자: 아니요 없어요

면담자: 아니면은 다음 기회라도 혹시 이런 자리를 다시 또 갖고 싶다라든지 제 생각에는 남편분이 소통이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소다회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 대상으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거는 혹시라도 가능할까요?

구술자: 근데 우리 아저씨가 허리 허리가 이렇게 여기가 부서졌어요. 뼈가 여기 등뼈가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어요.

면담자: 그러시구나.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술자: 감사합니다.

면담자: 수고하셨습니다.